

Japan Weekly Digest

2011. 9. 17. ~ 9. 23.

☐ 금주의 이슈

- 일본의 사회보장, 「고 급부, 저 부담」
- 신일본제철과 스미토모금속 통합으로 「신일철주금」 탄생

☐ 일본기업전략

- 일본중견기업 동남아 진출, 향후 3년간 350개사
- 닛산 부품 90%를 아시아에서 조달

☐ 경제산업성 동향

- 에다노 경산대신, 싱가포르와의 협력강화
- 일본, 멕시코와 경제연대협정 서명

☐ 보고서 리뷰

- 경단련 성장전략 2011 발표, 경단련, 9월17일



대한한일경제협회
Korea-Japan Economic Association

※ 자료제공 : (재)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

※ 본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(<http://www.kje.or.kr>)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
있사오며, 본 자료를 이메일로 받기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(Tel.02-3014-9888)

◆ 금주의 이슈

□ 일본의 사회보장, 「고 급부, 저 부담」

- 고령화로 인해 일본의 연금, 의료 등 사회보장급부가 확대되고 있으며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사회보장급부의 비율이 2010년에 30%를 돌파, 유럽 수준에 이릅니다
- 민주당 정권은 고령화에 의한 사회보장급부의 자연증가분을 수용을 위해 간정권이 지난 8월, 제출한 2012년도 예산요구에 자연증가분 1.2조 엔이 계상되어 있으며 노다 정권도 이를 답습
- 사회보장급부는 2010년 처음으로 100조엔을 돌파, 2011년도 107 조엔으로 과거 최대 규모이며 2025년도 151조엔으로 전망되어 국민소득에서 점하는 비율은 35%에 이르게 됨
- 사회보장 규모는 유럽수준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국민부담율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2011년 38%로 영국의 46%에 미치지 못하며 50~60%의 독일이나 스웨덴, 프랑스에 비하면 격차가 큼
- 일본 정부는 지난 6월, 사회보장과 세금의 일체화된 개혁안을 마련하여 소비세율 인상으로 사회보장급부의 증가분을 충당할 방침으로 2010년대 중반까지 소비세율을 10%로 인상할 계획

□ 신일본제철과 스미토모금속공업 통합으로 「신일철주금」 탄생

- 9월 22일 신일본제철(新日本製鐵)과 스미토모금속공업(住友金屬工業)이 2012년 10월에 통합하는 기본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. 합병 후 존속되는 회사는 신일철이며 새로운 회사명칭은 「신일철주금」 확정. 합병비율은 양사의 주가를 감안하여 스미토모금속 주식 1주당 신일철 주식 0.735주를 배당
- 신규회사의 조강생산량은 세계시장점유율 3%대로 6%대의 알세롤미탈(룩셈부르크)에 이어 2위로 부상할 전망이다. 신흥국들의 철강수요 증가나 엔高 등 시장 환경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양사는 대형합병을 통해 대응한다는 전략임

◆ 일본기업전략

□ 일본 중견기업, 향후 3년간 350개사 종합상사와 동반진출

- 일본의 자동차부품기업인 후타바(双葉)산업, 기계부품기업인 SUS 등 약 350개 기업이 종합상사가 조성한 공업단지에 동반진출 전망. 엔高로 해외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, 전기기계메이커들이 부품 및 소재 현지 조달율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중견·중소기업들도 사활을 걸고 해외이전을 서두르고 있음
- 종합상사들은 해외로 진출하는 중소·중견기업들을 입주시키기 위해 동남아시아에서 전력, 도로, 수처리 등 인프라가 정비된 공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이는 자금력이 부족한 중견·중소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임
- 동남아시아에 진출하고자하는 중견·중소기업들은 약 350개사에 달하는데 지진 발생 이후 급격한 엔高로 중소기업들로부터의 진출문의가 쇄도. 상사들은 공업단지 확장, 신설을 검토하고 있으나 인도네시아에서는 지가상승 등으로 신규 토지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임
- 이토추상사는 인도네시아 크라운공업단지에서 2012년 상반기중 임대공장 건설에 착수할 예정이며 점착테이프 메이커인 테라오카 제작소가 진출. 2012년 5월부터 베트남 공업단지에서 일본 중소제조업용 임대공장을 건설할 예정임

□ 닛산 큐슈공장, 부품의 90%를 아시아에서 조달

- 닛산자동차에서 분사하는 「닛산자동차큐슈」는 10월부터 아시아 및 큐슈지역으로부터의 부품조달율을 현재 70%에서 최고 90%까지 확대하고 신종 소형차도 생산할 방침
- 닛산큐슈의 생산능력은 43만대로 닛산차체큐슈와 연합하면 55만대로 닛산 최대 생산거점이 될 것임. 칼로스 곤 사장은 효율적인 부품조달이나 물류에 역점을 둔 거점으로서 큐슈의 강점을 최대한 살리는 한편, 큐슈 역내외에 중국이나 한국으로부터 부품조달을 확대함으로써 가격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고 함
- 현재 닛산큐슈의 반경 50km권내에는 1차 부품메이커 47개사가 집적해있으며 큐슈전체에 약 1,000개사에 달하는 자동차 관련 기업이 상주해 있음

◆ 경제산업성 동향

□ 에다노 경제산업상, 싱가포르와 협력강화 및 TPP 국내 논의 서둘러

-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에다노 경산대신은 고척동 싱가포르 수상과 회담에서 문화관련 산업의 육성과 아시아신흥국의 인프라 정비를 위해 양국이 협력하기로 함
- 이에 따라 동 분야에서 산업협력, 제3국 시장개척, 인재육성, 전문가 파견, 디자인 등 관련 기관과의 연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.
- 한편, 일본 통상정책의 현안인 환태평양연대협정(TPP)과 관련하여 에다노대신은 가능한 많은 나라들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재는 미국, 싱가포르 등 9개국이 추진하고 있는 교섭에 일본의 참가를 기대한다고 발언
- 에다노 대신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컨센서스를 모아 교섭에 참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면서 교섭참가의 전제가 되는 국내 합의 도출을 위한 논의를 서두를 뜻을 비침

□ 일본·멕시코 경제연대협정 개정의정서 서명

- 9월 22일 주멕시코 일본대사와 멕시코 경제성장관이 일본·멕시코 경제연대협정 개정의정서에 서명
- 이번 개정내용은 자동차부품 등의 관세철폐 시기를 앞당기고 인정수출기업에 의한 원산지신고제도 도입 등에 관한 것임
- 시장접근 개선 관련
 - 자동차부품 등 관세를 2014년부터 철폐예정(2012년 FTA관세율 약 3-5% 정도) → 즉시 철폐, 오렌지 관세 철폐, 사과, 녹차의 관세할당을 신규로 약속
 - 쇠고기, 돼지고기, 닭고기, 오렌지, 오렌지주스 등의 관세할당 수량 확대 및 한도내 관세율 인하
 - 실행최혜국세율(MFN세율)이 FTA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실행최혜국관세율을 적용하는 규정을 추가
- 원산지 개선
 - 인정수출업자에 의한 원산지 신고제도 도입으로 제 3기관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추가하여 일정한 조건을 갖추고 인정을 받은 수출업자가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게 됨
- 일본·멕시코 경제연대협정은 2005년 4월에 발효되었으나 2008년 9월부터 농산물 등 일부 분야에 대해 재협의를 진행되어 왔음

◆ 보고서 리뷰

『경단련 성장전략 2011~민간활력에 의한 성장가속을 위하여』

일본경제단체연합회, 9월17일

- 동 보고서는 지진재해에 엔高까지 겹쳐 국내 사업환경이 크게 악화됨에 따라 일본경제가 사상 유례없는 공동화 위기에 직면해있다는 상황인식하에, 풍요로운 국민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기업과 개인이 활력을 발휘하고 향후 10년간 실질 2%, 명목 3% 이상의 경제성장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로드맵 등을 제시

□ 성장 로드맵

- (성장 저해요인 해소) 정부는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성장저해요인을 해소
- (지진재해부흥과 성장전략의 일체화) 지진재해 부흥을 성장의 기폭제로 삼아 산업집적, 고용창출, 신기술개발 등 통한 일본경제의 도약
- (민간주도의 경제성장 실현) 기업은 세계 최고수준의 에너지환경 분야의 기술력이나 철저한 생산성과 효율성을 추구 등 현장중시의 제조, 관련기업과의 연대, 인재의 최대한 활용 등을 통하여 대내외 수요를 확보하고 경제성장의 추진 역할을 담당

□ 국제적인 입지경쟁력 강화

- 에너지·환경정책의 개혁
 - 향후 5년정도 안정적인 전력공급 확보를 위한 구체안 명시
 - 에너지전략, 신재생에너지, 저장에너지를 위한 혁신적인 기술개발 추진
 - 온실효과가스의 중기목표나 개별 온난화정책에 관한 제로베이스 논의
- 디플레 탈피와 환율 안정
 - 일본은행의 강력한 금융완화 계속, 필요시 추가완화책 실시
 - 규제개혁 등에 의해 내수활성화와 함께 경제연대협정 활용

- 법인세율을 포함한 기업의 공적부담 경감
 - 법인세율을 아시아 국가들 수준인 25%로 인하
 - 사회보험료에 의존한 사회보장제도를 개혁, 세입개혁을 통한 재원확보
- TPP를 비롯한 높은 수준의 경제연대 촉진
 - FTAAP(아태자유무역지대)구축을 시야에 두고 TPP에 조기참가, 한·중·일FTA, ASEAN+6를 촉진
- 노동시장의 다양성을 고려한 고용정책 실시
 - 노동시간 관련 법제의 탄력적인 운용 등 인사노무관리상의 유연성 확보
 - 기업활동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고용형태 실시

□ 성장가속을 위한 기업의 행동

- 미래도시 모델프로젝트를 비롯한 이노베이션 가속화
- 산업클러스터 형성에 의한 경쟁력 강화
- 관광·농업의 진흥을 통한 지역활성화
-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와의 일체화

□ 성장지속에 필수불가결한 기반 정비

- 사회보장과 조세·재정과의 일체화된 개혁
- 도주제(道州制: 47개 도도부현을 9~13개의 도주로 통합, 광역경제권으로 육성을 골자로 한 제도)와 지역주의 개혁
- 도시의 경쟁력 강화
- 금융·자본시장의 기능강화
- 글로벌인재 육성과 해외에서 영입

【금주의 일본 주요보고서】

(1) 『서플라이체인 강화를 통한 공동화 리스크 대응』

미즈호코퍼레이트은행, 9월17일

*출처: http://www.mizuhocbk.co.jp/fin_info/industry/sangyou/pdf/mif_100.pdf

(2) 『경단련 성장전략 2011~민간활력 발휘에 의한 성장가속을 위하여』

일본경제단체연합회, 9월17일

*출처: <http://www.keidanren.or.jp/japanese/policy/2011/089/index.html>

(3) 『일본의 성장전략~동일본 대지진 재해로부터의 부흥을 지향』

경제산업연구소, 9월21일

*출처: http://www.rieti.go.jp/jp/special/special_report/050.html

(4) 『2011년도 경단련 규제개혁요망 : 신생 일본창조를 위한 기반정비』

일본경제단체연합회, 9월21일

*출처: <http://www.keidanren.or.jp/japanese/policy/2011/088/index.html>

(5) 『일본의 국채발행과 재정운용 방향을 어떻게 보는가』

일본종합연구소, 9월22일

*출처: <http://www.jri.co.jp/MediaLibrary/file/pdf/company/release/2011/110921/110921.pdf>

(6) 『수출의 엔高 내구력을 어떻게 보는가 : 경제움직임』

스미토모신탁은행, 9월23일

*출처: <http://www3.keizaireport.com/report.php/RID/142638>